

『새한글성경』을 중심으로 한 역본 비교 연구 — 제안과 예시 —

이두희*

1. 들어가는 말

대한성서공회에서는 2024년 12월 『새한글』을 새롭게 번역 출간하였습니다. 오랫동안 『개역개정』(1998)을 읽으며 신앙생활을 해온 성도들은 왜 새로운 성경을 펴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예배용 성경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역개정』을 통해 한국교회는 큰 은혜와 부흥을 경험했고, 지금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큰 어려움 없이 『개역개정』으로 신앙 생활을 잘 해 나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에게는 형편이 조금 다릅니다. 『개역개정』에 남아 있는 옛 문체나 어려운 한자어가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는 여전히 어렵게 다가옵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언어 사용이나 독서 습관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전자매체의 비중이 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21세기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이 읽기에 더 쉬운 성경을 새롭게 번역할 필요가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성서공회는 2011년 9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새한글』의 번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11월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이 출간되었으며 독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새한글』의 신구약 완역본이 출간되었습니다. 이에 『새한글』 신약의 주요 번역 특징과 그 활용법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 Graduate Theological Union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대한성서공회 성경번역 연구소 소장. dhlee@bskorea.or.kr.

먼저, 새로운 번역 또는 기존 역본을 개정하는 작업의 필요성과 새로운 번역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은 새로운 번역이나 개정 작업이 필요한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언어의 변천입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변하기 때문에 그 시대에 가장 잘 소통되는 언어와 표현으로 기존 번역본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1911년에 나온 『구역』을 지금까지 계속 사용해야 한다면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을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성서학의 발전입니다. 새로운 사본이나 고고학적 자료의 발견, 언어학 및 주석학의 발전을 통해 성경에 대한 이해가 날로 깊어지고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들을 번역에 반영하여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중요한 점 하나는 이러한 성경의 번역과 개정이 교회사를 통해 볼 때 교회와 신앙을 새롭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예로 들어보면, 루터의 성경 번역을 통해 일반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깨닫게 된 일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중국어 성경이 일부 양반 지식인들에게만 소개되던 시절에 순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신자가 생겨나고 교회가 형성되어 하나님 말씀의 터 위에서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 발전하게 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이러한 점에 유념하면서 한국교회와 성도들께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고도 새롭게 읽고 깨닫는 일을 돋기 위해 개역 성경의 개정과 새 시대 새 세대를 위한 새로운 번역을 주기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한 결과물인 『새한글』 신약의 주요 번역 특징과 활용 방안에 대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새한글』이 완역되어 더 널리 활용되는 가운데,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신앙 부흥과 개혁의 불이 새롭게 타오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새한글』을 활용한 ‘역본 비교 성경 연구 방안’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짐작하기로는 설교나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이미 『개역개정』 이외에 다른 성경 번역본들을 비교 참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여러 번역본들을 비교 연구하며 읽는 가운데 주석이나 설교의 실마리나 아이디어를 얻어내는 데까지 나아가는 분들은 많지 않은 듯합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성경의 여러 번역본들을 나란히 펼쳐 두고 비교 대조하며 읽는 가운데, 주석이나 설교나 성경 공부를 위한 좋은 착안점을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2. 사용할 성경 번역본들의 범위

2.1. 한글 성경 번역본들: 공인 역본들(『개역개정』, 『새번역』, 『공동 개정』)을 주로 활용

우선적으로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공인 번역 성경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개역개정』을 기본으로 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좀 더 읽기 쉽게 번역된 『새번역』, 『공동개정』을 추천합니다. 그 밖에도 일반 출판사들에서 나온 번역 성경들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출판사에서 나온 번역본들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과는 달리, 공인 기관에서 출간한 것이 아니므로, 개인적으로 읽고 도움을 얻는 정도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2. 외국어 성경 번역본들: 자신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동서양의 외국어 성경을 활용

어느 나라든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성경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형식 일치(formal correspondence)’에 중점을 두는 직역 강조 번역 성경이고, 다른 하나는 ‘내용 동등성(dynamic equivalence)’에 방점을 두는 내용 전달 강조 번역 성경입니다. 가능하면 서로 성격이 다른 두 종류의 번역 성경을 동시에 활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영어 번역본으로는 ESV, KJV, NET, NIV, NRS, 독일어 번역본으로는 <취리히성경>(Zürcher Bibel)과 <루터성경>(Luther Bibel)과 <기초성경>(BasisBibel)을 참조하면 좋습니다. 이 논문에서도 필요한 경우에 이 역본들을 참조할 것이며, 독일어 성경을 인용할 때는 각각 줄임말인 ZB, LB, BB로 줄여 인용합니다. 그 밖에 불어 번역본은 꼭 필요할 때만 이름을 밝히고 인용합니다.

3. 여러 번역 성경들의 대조 연구 방법 개관

(1) 우선 여러 번역본을 펼쳐 놓고, 설교나 성경 공부에서 살펴볼 본문을 비교 대조하며 여러 번 읽어 봅니다(팁: 여러 역본을 나란히 두고 비교할 수 있는 별도 파일을 만들어 활용).

(2) 그 과정에서 번역본들 사이에서 관찰되는 차이점이나 특이점들을 찾아봅니다.

(3) 그런 뒤에는 그러한 차이점이나 특이점이 왜 생겼을지 스스로 질문을 던져 봅니다.

(4) 가능하신 경우에는, 영어나 독일어나 불어 등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외국어 번역 성경들도 참조해 보면서, 위에서 관찰한 문제점에 대해 더 살펴봅니다.

(5) 스스로 그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대답을 적어 봅니다.

(6) 주석이나 성경 사전 등 다른 참고 자료를 활용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찾아봅니다.

(7) 이런 과정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이 우리 자신과 성도들에게 알려 주는 새로운 정보나 통찰이 무엇인지 정리해 봅니다.

(8) (7)에서 얻은 내용을 설교나 성경 공부의 다양한 상황에 맞추어 활용합니다.¹⁾

4. 마태복음 5:19

GNT⁵

ὅς ἔὰν οὖν λύσῃ μίαν τῶν ἐντολῶν τούτων τῶν ἐλαχίστων καὶ διδάξῃ οὗτως τοὺς ἀνθρώπους, ἐλάχιστος κληθήσεται ἐν τῇ βασιλείᾳ τῶν οὐρανῶν· ὅς δὲ ἂν ποιήσῃ καὶ διδάξῃ, οὗτος μέγας κληθήσεται ἐν τῇ βασιλείᾳ τῶν οὐρανῶν.

『개역개정』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새번역』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 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 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공동개정』

그러므로 가장 작은 계명 중에 하나라도 스스로 어기

1) 참고: 위에서 정리한 내용들은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운 ‘편집 비평’의 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역본 간의 비교뿐만 아니라, 같은 역본 내에서 공관 복음의 연구에도 적용할 수 있고, 서신서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연구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거나, 어기도록 남을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 대접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계명을 지키고, 남에게도 지키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늘 나라에서 큰 사람 대접을 받을 것이다.

『새한글』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은 누구든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 불릴 것입니다. 다른 한편 누구든 그대로 실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이 야말로 하늘나라에서 큰사람이라 불릴 것입니다.

4.1. 차이점 관찰

(1) 『개역개정』, 『새번역』에서 ‘행하며’, 『공동개정』에서 ‘지키고’라고 번역한 것을, 『새한글』은 ‘실행하고’로 번역했습니다.

(2) 『개역개정』에서 ‘천국’이라고 번역한 것을 『새번역』, 『공동개정』, 『새한글』은 ‘하늘나라’로 번역했습니다.

4.2. 외국어 역본 참조

영어 성경에서는 대부분 ‘do’ 동사와 ‘kingdom of heaven’으로 번역되어 있어서 별다른 차이를 느낄 수 없습니다.

4.3.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예비적 고찰

(1) ‘행하다’와 ‘지키다’를 비교해 보면, ‘행하다’에 조금 더 능동성이 느껴집니다.

(2) ‘행하다’를 ‘실행하다’로 번역한 것은 ‘행하다’의 의미를 조금 더 강조하려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4.4.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신학적 고찰

(1) 마태복음은 ‘겉 다르고 속 다른’ 삶이 아닌, 행동하는 믿음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2) 그래서인지 『새한글』에서는 기존의 ‘외식’을 ‘겉 다르고 속 다름’으로 표현하면서 말과 행동의 일치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게 하고 있습니다.

(3) 산상 설교, 여러 비유 말씀(예. 두 아들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등)도 행동하는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4) 마태복음 4:23과 9:35가 서로 대응을 이루며 5-9장을 감싸주는 수미상관(inclusio)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5-7장은 산상 설교로서 예수님의 말씀 사역을, 8-9장은 10개의 기적 모음으로서 예수님의 행동하시는 사역을 집중적으로 전해 주고 있습니다.

(5) 성경은 은혜와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의 중요성도 결코 간과하지 않습니다. 이런 실천하는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 ‘실행하다’라는 번역어 변화를 화두로 삼아 깊이 북상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

5. 마가복음 1:10

GN1 ⁵	καὶ εὐθὺς ἀναβαίνων ἐκ τοῦ ὄντος εἶδεν οὐκανένους τοὺς οὐρανούς καὶ τὸ πνεῦμα ὡς περιστερὰν καταβαῖνον εἰς αὐτόν·
『개역개정』	곧 물에서 <u>올라오실</u> 새 하늘이 <u>갈라짐</u> 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새번역』	예수께서 물 속에서 막 <u>올라오시는데</u> , 하늘이 <u>갈라지고</u>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공동개정』	그리고 물에서 <u>올라오실</u> 때 하늘이 <u>갈라지며</u>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당신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새한글』	곧바로 예수님의 물속에서 <u>솟아오를</u> 때에 보시니, 하늘이 <u>찢어지고</u>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내려오셨다.

5.1. 차이점 관찰

- (1)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개정』에서 ‘올라오다’라고 번역한 것을, 『새한글』은 ‘솟아오르다’로 번역했습니다.
- (2)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개정』에서 ‘갈라지다’라고 번역한 것을, 『새한글』은 ‘찢어지다’로 번역했습니다.

5.2. 외국어 역본 참조

(1) ‘올라오다’, ‘솟아오르다’와 관련해서, 영어 성경들(KJV, NET, NIV, NRS)은 ‘coming up’으로 번역했습니다. 독일어 ZB는 ‘steigen’으로 조금 색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2) ‘갈라지다’, ‘찢어지다’와 관련해서, ‘opened’(KJV), ‘torn apart’(NRS),

‘split apart’(NET) 등으로 번역된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불어 성경에서도 ‘s'ouvrir(open)’(BFC)와 ‘déchirer(tear apart)’(FBJ, TOB)로 번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3.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예비적 고찰

(1) ‘솟아오르다’는 물속에 잠겼다가 물 위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다 역동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변화로 보입니다.

(2) ‘찢어지다’라는 번역어가 외국어 역본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보면, 그리스어 원문 단어에는 ‘찢어지다’라는 뜻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5.4.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신학적 고찰

(1) ‘올라오다’는 물에서 물으로 올라온다는 뜻으로도 읽히는 반면, ‘솟아오르다’는 물속에 잠겼다가 물 위로 떠오르는 것을 나타내는 듯합니다. 전자로 이해하면, 예수님이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요르단강 밖으로 나오는 의미로도 읽힙니다. 후자로 읽으면, 침례의 의미가 더욱 부각됩니다(참조, 그리스어 원어: ἀναβαίνω).

(2) ‘갈라지다’, ‘찢어지다’로 번역된 그리스어 낱말은 σχίζω 동사입니다. 직역하면 ‘찢어지다’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단어는 마가복음에서 2번만 나옵니다. 이곳 마가복음 1:10과 마가복음 15:38입니다. 마가복음 15:38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틀로 찢어졌다는 내용을 전달하는 문맥에 위치합니다.

(3) 마가복음 1:10은 예수님의 공생애 활동이 시작되는 시점, 마가복음 15:38은 예수님의 공생애 활동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자리합니다. 하늘이 찢어진 사건과 성소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 서로 상응 관계에 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막힌 길이 뚫리는 두 사건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혔다가 뚫리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4) 공관복음의 병행 구절을 보면, 하늘이 ‘열렸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가는 단순히 ‘열리다’ 정도가 아니라, ‘찢어지다’라는 단어를 통해 강렬한 이미지를 전달하고, 성소 휘장이 찢어진 사건과의 연관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5) 마가복음은 십자가 사건을 통한 속량의 의미를 강조하는 복음서입니다. 이러한 강조점을 부각하는 효과도 고려한 단어 선택으로 보입니다.

6. 누가복음 1:5

GNT ⁵	Ἐγένετο ἐν ταῖς ἡμέραις Ἡρώδου βασιλέως τῆς Ἰουδαίας Ἱερεύς τις ὀνόματι Ζαχαρίας ἐξ ἑφημερίας Ἀβιά, καὶ γυνὴ αὐτῷ ἐκ τῶν <u>θυγατέρων</u> Ἀαρὼν καὶ τὸ ὄνομα αὐτῆς <u>Ἐλισάβετ</u> .
『개역개정』	유대 왕 해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u>자손</u> 이니 이름은 <u>엘리사벳</u> 이라
『새번역』	유대왕 해롯 때에, 아비야 조에 배속된 제사장으로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u>자손</u> 인데, 이름은 <u>엘리사벳</u> 이다.
『공동개정』	헤로데가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아비야 조에 속하는 사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즈가리야였고 그의 아내는 사제 아론의 <u>후예</u> 로서 이름은 <u>엘리사벳</u> 이었다.
『새한글』	해롯이 유대아의 임금이던 시절에 어떤 제사장이 있었다. 이름은 스가랴이고 아비야 모둠에 딸린 사람이다. 그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아론의 <u>여자 후손</u> 으로 이름은 <u>엘리자베스</u> 였다.

6.1. 차이점 관찰

- 『개역개정』, 『새번역』에서 ‘자손’으로, 『공동개정』에서 ‘후예’로 번역한 것을, 『새한글』은 ‘여자 후손’으로 번역했습니다.
-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개정』에서 ‘엘리사벳’으로 번역한 것을, 『새한글』은 ‘엘리자베스’로 번역했습니다.

6.2. 외국어 역본 참조

영어 역본들은 ‘descendant’(NET, NIV, NRS), ‘daughter’(ESV) 등으로 번역했습니다. 독일어 ZB는 ‘eine Tochter’로, LB는 ‘von den Töchtern’으로, BB는 ‘stammte von Aaron ab’으로 번역했습니다.

6.3.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예비적 고찰

- 조금 더 직역의 경향을 보이는 번역본들이 ‘딸’이라는 단어를 번역에 포함한 것으로 보아, 그리스어 원문의 단어는 ‘딸’을 가리키는 단어인 듯합니다.
- ‘자손’ 또는 ‘후손’으로 번역한 역본들은 ‘딸’이라는 단어를 문맥에 비

추어 자연스럽게 번역한 듯합니다. 원문이 ‘딸’로 되어 있더라도, 이를 직역할 경우 아론의 후손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직계 딸로 오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6.4.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신학적 고찰

(1) 그리스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자면, ‘아론의 딸들 가운데 하나’로 번역한 LB가 가장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대로 직계 딸로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후손’이나 ‘후예’로 의역하는 것이 독자에게는 더 친절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 저자가 원문에서 굳이 ‘딸’이라는 단어를 밝혀서 적은 의도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앞뒤 문맥으로, 엘리사벳이 당연히 여성이라는 점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이 여성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혀서 적은 저자의 의도가 있지는 않았을까요?

(3) 특히, 누가복음의 경우 여성의 존재와 역할을 비교적 분명하게 밝혀서 드러내 주는 특징을 가졌다라는 점을 생각하면, 그냥 지나치기에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주석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상당히 특징적으로 여성과 남성을 균형 있게 나란히 보여 주는 경향을 보입니다. 누가는 남성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그에 상응하여 여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란히 보여 주곤 합니다. 물론 그 반대로 여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들려준 다음 그것에 짹을 이루도록 남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누가복음 2장에서는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난 예언자가 소개되는데 한 명은 시므온이고 다른 한 명은 안나입니다. 한 명은 남자, 한 명은 여자입니다. 누가복음 4:16-30에서 예수님은 구약에서 두 인물의 이야기를 끌어오시는데, 한 명은 사렙다에 사는 남편 여인 여자이고 다른 한 명은 나아만 장군입니다. 한 명은 여자, 한 명은 남자입니다. 누가복음 7:1-10에서 백명대장의 종을 고쳐 준 기적이 소개되고, 바로 이어서 7:11-17에서는 나인이란 도시의 남편 여인 여자의 아들을 살리신 기적이 소개됩니다. 백명대장은 남자, 나인인 이란 도시에서 만난 사람은 남편 여인 여자입니다. 누가복음 13:18-21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두 개 나옵니다. 하나는 남자와 긴밀하게 연결된 겨자씨 비유이고(농사 관련), 다른 하나는 여자와 긴밀하게 연결된 누룩비유(가정 관련)입니다. 누가복음 17:34-35에는 인자가 다시 오실 때에 있을 일과 관련하여 두 가지 예시가 나옵니다. 하나는, 같은 놓자리에 있던 두 남자 가운데 한 명은 데려감을 얻고 다른 한 명은 벼려둠을 당한다는 것입

니다. 다른 하나는, 맷돌을 돌리던 두 여자 가운데 한 명은 데려감을 얻고 다른 한 명은 벼려둠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취지의 보기들인데, 한 이야기에는 두 남자가 등장하고 다른 이야기에는 두 여자가 등장합니다(참조, 눅 8:1-3).

(4) 이처럼 남성과 여성의 존재를 균형 있게 소개하려는 의도를 보이는 누가가 엘리사벳을 ‘아론의 딸들 가운데 한 명’이라고 말할 때, 딸이라는 낱말을 허투루 사용한 것은 아닐 듯합니다. 이런 누가의 의도를 어떻게든 반영하기 위해 『새한글』에서는 ‘여자 후손’이라는 번역어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러한 번역어의 차이를 실마리로 삼아 누가복음이 보여 주는 내러티브의 특성을 성경 공부나 설교에서 훑어볼 수 있습니다.

7. 요한복음 15:4

GN^T⁵

μείνατε ἐν ἐμοί, καγγὼ ἐν ὑμῖν. καθὼς τὸ κλῆμα οὐ δύναται καρπὸν φέρειν ἀφ' ἑαυτοῦ ἐὰν **μὴ μένῃ** ἐν τῇ ἀμπέλῳ, οὕτως οὐδὲ ὑμεῖς ἐὰν **μὴ** ἐν ἐμοὶ **μένητε**.

『개역개정』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
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으 갇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거하라

『새벽열』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공동개정』

너희는 나를 떠나지 마라. 나도 너희를 떠나지 않겠
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가 스스로 열매
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붙어 있지 않
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새한글』

내 안에 머물러 있으세요. 그러면 나도 그대들 안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가지가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요. 그처럼 그대들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마차가지입니다.

7.1. 차이점 관찰

『개역개정』에서 ‘거하다’, ‘붙어 있다’, ‘… 안에 있다’로, 『새번역』에서 ‘머물러 있다’, ‘붙어 있다’로, 『공동개정』에서 ‘떠나지 않다’, ‘붙어 있다’로

번역한 것을, 『새한글』은 일관되게 ‘머물러 있다’로 번역했습니다.

7.2. 외국어 역본 참조

영어 역본들은 ‘abide’(ESV, NRS), ‘remain’(NET, NIV)으로 번역했습니다. 독일어 ZB, LB, BB는 ‘bleiben’으로 번역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할 점은, 영어나 독일어 번역들은 위의 표에서 밑줄 친 단어들이 나올 때마다 모두 똑같은 단어로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7.3.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예비적 고찰

(1) 우리말로는 서로 다르게 번역된 밑줄 친 낱말들이 나올 때마다 외국어 번역들이 같은 낱말로 번역한 것을 보면, 밑줄 친 부분의 저변에 깔린 그리스어 단어는 같은 단어였을 것입니다.

(2) 그러나 우리말로 번역할 때, ‘포도나무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표현은 다소 어색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개정』의 번역자들은 밑줄 친 부분에 쓰인 그리스어 원문 단어가 같더라도 우리말 번역문에서는 각각 문맥에서 자연스럽게 읽힐 수 있는 번역어를 찾아 번역한 듯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우리말로는 훨씬 자연스럽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3) 한편 『새한글』은 우리말로 다소 어색하게 들릴 수 있음을 모르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밑줄 친 부분을 모두 똑같은 단어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7.4.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신학적 고찰

(1) 밑줄 친 부분에 쓰인 그리스어 낱말은 *μένω* 동사입니다. 이 동사는 ‘머물다, 거하다’ 등으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에서는 문맥에 따라 ‘머물다’로 번역되기도 하고, ‘거하다’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2) 그런데 이 *μένω* 동사는 요한복음에서 매우 특징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공관복음에서는 ‘따르다’라는 뜻을 지닌 *ἀκολουθέω*라는 동사가 자주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나서는 사람들의 모습이 ‘따르다’라는 동사를 통해 매우 인상적으로 그려집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것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됩니다. 요한복음 1:39에 따르면, 요한의 제자였던 2명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머무시는 곳에서 함께 머물렀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이신 것을 깨닫고, 자신들이 깨

달은 내용을 자기 형제에게도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머문 시간이 가져온 놀라운 변화를 인상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4:39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자의 중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4:40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기들 곁에 머물러 달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요청에 응하여 그들과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그 결과 더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세상의 구원자’로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머문 이틀의 시간이 가져온 놀라운 결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살펴본 15:4를 포함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서도 ‘머물다’라는 동사가 높은 빈도로 반복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더라도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합니다.

(3)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우리말 번역문의 자연스러움도 중요하겠지만, 요한복음에서 두드러진 중요 강조점이 조금이라도 더 선명하게 독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번역어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새한글』은 다소 어색함을 무릅쓰고 요한복음 15:4에 쓰인 μένω 동사를 모두 동일하게 ‘머물러 있다’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동사가 반복 사용되고 있음을 관찰하도록 돋고, 반복 사용된 이유를 묵상하는 가운데, 요한의 강조점에 다가가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8. 로마서 6:23

GNT⁵

τὰ γὰρ ὀψώνια τῆς ἀμαρτίας θάνατος, τὸ δὲ χάρισμα τοῦ Θεοῦ ζωὴ ἀιώνιος ἐν Χριστῷ Ἰησοῦ τῷ κυρίῳ ἡμῶν.

『개역개정』

죄의 삶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새번역』

죄의 삶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공동개정』

죄의 대가는는 죽음이지만 하느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새한글』

죄의 풀값은 죽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8.1. 차이점 관찰

- (1) 『개역개정』, 『새번역』에서 ‘삯’으로, 『공동개정』에서 ‘대가’로 번역한 것을, 『새한글』은 ‘품값’으로 번역했습니다.
- (2) 『개역개정』에서 ‘하나님의 은사’로, 『새번역』에서 ‘하나님의 선물’로, 『공동개정』에서 ‘하느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로 번역한 것을, 『새한글』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번역했습니다.

8.2. 외국어 역본 참조

- (1) 우리말 ‘삯’, ‘대가’, ‘품값’에 해당하는 단어를 영어 역본들은 ‘wages’(ESV, KJV, NIV, NRS), ‘payoffs’(NET) 등으로 번역했습니다. 독일어 ZB와 LB는 ‘Sold(급료, 봉급)’로 번역했습니다.

- (2) 우리말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 ‘하느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에 해당하는 문구를 영어 성경들은 ‘the gift of God’(KJV, NET, NIV), ‘the free gift of God’(ESV, NRS)으로 번역했습니다. 독일어 ZB나 LB는 ‘die Gabe Gottes’로 번역했습니다.

8.3.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예비적 고찰

- (1) 외국어 번역을 보면, 우리말 ‘삯’, ‘대가’, ‘품값’으로 번역된 단어가 ‘봉급’, ‘급료’의 뜻을 가진 낱말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 (2) ‘하나님의 선물’에 해당하는 번역어들은 ‘선물’의 의미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공짜, 거저 주시는, 은혜의’라는 수식어를 사용하기도 했음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공동개정』은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 주체임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 줍니다. 『새한글』은 『공동개정』만큼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번역함으로써,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주체임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 (3) 얼핏 보면, 번역어들이 지시하는 의미는 다 똑같아 보입니다. 번역어가 달라졌다고 해서 본문 이해가 크게 달라질 만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한글』이 굳이 ‘삯’을 ‘품값’으로 한 데에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이 구절에 적힌 ‘죄의 삿은 사망’이라는 표현을 읽을 때, ‘죄를 지으면 죽음의 결과가 뒤따른다.’라고 이해하는 듯합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품값’이라고 하면, 그냥 어떤 사태의 결과라는 느낌과는 다른 의미가 떠오릅니다. ‘품값’은 보통 어떤 일을 한 대가로 받는 보상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8.4.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신학적 고찰

(1) 사전적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삯’이나 ‘보상’도 어떤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받는 대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죄의 삿’이라는 표현에서 보통 우리는 죄를 지으면 받게 되는 당연한 결과의 의미를 떠올립니다.

(2) 본문이 전하는 의미의 측면에서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로마서가 죄를 인격화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드러내 주지는 못합니다. 로마서는 ‘죄’라는 단어를 매우 독특하게 사용합니다. 우리가 짓게 되는 잘못을 가리키는 의미로 죄를 사용하기보다는, 우리를 다스리는 악한 세력이라는 뜻으로 더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보통 ‘죄’라는 단어가 단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6:23에서도 ‘죄의 삿’이라고 할 때, 여기서 ‘죄’는 우리가 저지르는 잘못의 의미라기보다는 우리를 자신의 종으로 만들어 우리를 부려 먹는 악한 세력의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죄의 삿’은 우리가 저지른 죄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를 부려 먹은 악한 세력인 ‘죄’가, 자신의 지배에 노예 노릇한 우리에게 지불하는 품삯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3) 물론 주의 깊은 독자라면, 로마서 6장에서 ‘죄의 종노릇’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등 죄가 인격화되고 있는 특징을 바탕으로, ‘죄의 삿’이라는 표현에서 그런 의미를 읽어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주인으로서 자기의 종에게 품삯을 지불한다는 개념은 일상적으로는 익숙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로마서의 이런 독특한 용례를 제대로 간파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새한글』은 ‘품삯’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삯’이라는 표현이 이미 품고 있는 뜻이지만, 독자들이 놓치기 쉬운 의미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볼 수 있도록 의도한 것입니다.

(4) 참고로 로마서는 우리의 구원에 관해 설명하면서 두 가지 설명 모델을 동원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정적(judicial) 모델이고, 다른 하나는 참여(participation) 모델입니다. 법정적 모델에서는 마치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하듯이,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무죄로 인정해 주셔서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도록 해 주신다는 식으로 구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우리가 치를 죄값을 대신 치른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 참여 모델에서는 ‘죄’가 악한 세력으로 이해됩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악한 세력인 죄는 우리 인간을 자기의 노예로 삼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따라 살게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러한 죄의 지배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능력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러한 죄의 세력을 눌러 이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러한 죄의 지배로부터 풀려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악한 세력인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로마서는 3-5장에서 주로 법정적 모델을 사용하여 구원 개념을 설명하고, 6-8장에서는 참여 모델을 사용하여 구원 개념을 설명합니다. 이 두 가지 모델에 대해 잘 숙지하면서 로마서를 읽어 보면, 바울의 의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제어>(Keywords)

마태복음 5:19, 마가복음 1:10, 누가복음 1:5, 요한복음 15:4, 로마서 6:23.

Matthew 5:19, Mark 1:10, Luke 1:5, John 15:4, Romans 6:23.

(투고 일자: 2024년 9월 9일, 심사 일자: 2024년 9월 24일, 게재 확정 일자: 2024년 9월 30일)